

2016년 10월 21일, 구좌읍 세화리 부신남씨 댁, 송정희 조사.
부신남(여, 1920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[제보자] 옛날에 저 거시기, 동거리, 거시기 아방, 저 누게, 영춘이아방 산 때, 어디 손당 그 하르방이 침주주게, 침 주레 덩견 손당 간, 오다네 어디 목이 뜨선가? 헛게 미천, 그런 사름 앞에 산 강, 제게 가민 제게 가고, 뜨게 가민 뜨게 가곡, 그 헛게 돌란 가단, 헛게가 어디 덤불 속더레 간 밀러부난, 불아네. 이젠 좇이레 나간 보난 막 양지 막 뜰어지고 섬벌에서 죽지 안 혀만. 살안, 그때 오랜에 경 헤도 오래 살단 죽엇어. 영춘이아방. 경 헤낫젠 헤여.

- 핵심어 : 세화리, 헛게, 손당, 덤불